

# 맞벌이 가구의 수입관리 유형 및 가계비관리 유형과 영향요인

## Patterns of Income and Household Expenses Arrangements and Determinants Within Dual-Income Families

일본 히로사키대학 교육학부  
전임강사 이 수 진

Faculty of Education, Hirosaki University  
Full-time Lecturer : Sujin Lee

###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선행연구 고찰      | V. 결론 및 논의    |
|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monstrate the patterns of income and household expense arrangements within dual-income families. The data was obtained from the F-GENS Korea Panel Survey of Ochanomizu University. The responses were gathered from both married and unmarried people, primarily in Seoul and the metropolitan area, of ages ranging from 25 to 44. The sample for this study was comprised of data from 399 double-income households. Crosstab and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models were used to analyze the data.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dual-income families choose a pooling system as their income arrangement. Second, variables determining the income arrangement were the husband's age, school attainment, annual average income, and average working hour per day. Third, variables that affected the household expenses arrangement included the husband's level of schooling attained and the husband's job type. Fourth, the ideology of the economic community effected both the income and household expenses arrangement.

**주제어(Key Words)** : 수입관리 유형(pattern of income arrangement), 가계비 관리 유형(household expenses arrangement), 맞벌이 가구(dual-income family), 경제공동체의식(ideology of economic community)

## I. 서론

가계내의 화폐의 흐름은 소득의 유입, 소득의 이전 및 배분, 소비지출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가족구성원의 소득과 「가계」와의 관계의 흐름을 보면 가계내에 유입된 각 가족구성원의 소득은 가족가계와 개별가계, 가계관리를 위한 화폐와 개인관리를 위한 화폐로 이전, 배분되게 되며, 각 개인에게 이전, 배분된 화폐는 개인을 위한 지출 및 공동을 위한 지출 등 소비지출을 하게 된다(御船, 1990, 1992a)

가족가계가 성립하게 되는 요인은 소득의 전액이 관리자의 관리범위안에 있을 때이며 예를 들면 남편이 월급통장, 도장, 현금카드 등을 통째로 부인에게 맡긴 경우가 그것에 해당할 것이다. 물론 부인의 월급도 전액 남편의 월급과 함께 가족의 화폐로서 관리될 때 가족가계가 성립되게 된다(木村, 2003).

御船(1989)는 가족가계가 성립되게 된 배경으로 개인의 수입이 가족의 공통비용과 가족의 필수적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충분한 수준이지 않았던 점, 가계의 소득원천이 소수였던 점, 가계의 총지출에서 가족의 공통비용과 가족의 필수적 비용이 점하는 비율이 높으며 개인을 위한 비용의 비율이 적었던 점을 꼽고 있다.

소득원천은 한정되어 있으면서 개인의 소득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가족의 공통비용과 필수적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전액을 한 사람의 관리하에 놓고 소비지출까지 관리하는 가족가계가 가장 효과적인 관리방법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근래에 맞벌이 부부의 증가는 물론 투잡족 등이 등장하면서 즉 남편의 수입 이외의 부인의 수입, 본업으로 부부의 수입 이외의 부업으로 얻어지는 수입 등 수입원이 다원화되었다. 또한 수입의 증가와 더불어 개인의 필수적 비용이 증대됨으로 인해서 가족가계와는 별도로 이를 관리하는 개별가계의 비중이 커지게 되었으며 더불어 현금지출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능을 가진 신용카드 등 지출수단이 다양화되었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더 이상 가구내에 들어온 화폐를 가족원 중 한 사람이 일괄관리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가계내에 들어온 수입을 관리할 것인가, 또한 공동을 위한 지출을 누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부간의 의사결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전의 가계연구는 가계비분석에 중점을 두고 가계비의 배분결과 특히 비목별 배분결과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는 가구간의 생활수준을 파악하는 데는 유용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가족구성원간의 다양한 조정과정의 파악을 생략해 왔으며 가계비를 둘러싼 가족구성원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가계내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행위는 가계가 가구내에서의 다양한 수지(收支)와 가구내 개개인의 다양한 조정과정을 거쳐서 비로서 성립된다고 하는 점을 강조한 御船(1992b)의 논의에서처럼 부부관계를 규명하는데 있어서 가계와 가계관리를 언급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이는 가계는 가족을 단위로 조직되고 운용된다고 하는 높은 수준의 가계의 공동성을 전제로 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 더불어 가계운용의 과정을 거쳐서 가족원에게 공동으로 적용되는 결과를 이끌어 내기까지는 가족원 간의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마련인데 한사람의 관리자(일반적으로 주부)가 가구내의 화폐에 관해서 전체를 파악하고 가구 전체를 시야에 넣고 관리를 하는 것이 당연시 되어 왔던 점도 지적할 수 있겠다(木村, 御船, 室住, 1993).

가계에 들어오는 소득 및 가계비 지출의 관리유형과 부부관계에 초점을 맞춘 대표적인 연구로는 영국의 Paul(1980, 1994)의 연구가 있으며 일본의 御船(1995a)가 제시한 분류도 유용하다. 우리나라에서 Paul과 御船의 유형화와 유사한 방법으로 가계관리 유형을 시도한 연구는 한지수(1997)와 박혜진(2006)의 연구를 들 수 있으나 우리나라 가구의 가계관리의 특성을 포착하는 분류체계를 제시하는 데까지는 다다르지 않았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가구의 수입원의 다원화, 개인소비분의 증가, 지출 수단의 다양화 등으로 인해 수입관리와 가계비관리의 측면을 동시에 고려한 가계관리의 양상을 유형화시키기에는 그리 단순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는 가정내에서 행해지는 수많은 의사결정사항 중 하나로서 취급되어왔던 가계관리를 누가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맞벌이 가구의 가계관리의 특성과 영향요인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계관리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계관리를 구체적으로 가계 경제내에서의 수입의 관리 및 가계비의 관리의 두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부부관계를 규명하는 지표로서 가계관리 유형의 적용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할 것이다.

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은 전업주부가구에 비해서 수입 원천이 다원화 되어 있어서 가계관리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요인이 다양하고 복잡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II. 선행연구 고찰

### 1. 가계관리 유형의 분포

우리나라에서의 70-90년대에 이루어진 가계관리에 대한 연구는 생활경영의 측면에서의 접근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가계관리의 결과는 가정생활의 물질적 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 주목한 연구가 행해졌다(김양희, 1991; 박명희, 1977; 이기춘, 1975; 황덕순, 1981). 그 후 가계관리를 단순히 관리행동으로 다루는데 그치지 않고 가계관리권과 가정내의 여성의 권력, 부부간에 있어서의 경제자원의 관리를 둘러싼 젠더 관계를 규명하는 자료로서 이용한 연구들이 등장하였다 (김현주, 2003; 박혜진, 2006; 한지수, 이연숙, 1998).

황덕순(1981)은 제주도에서 어업을 하는 가계를 대상으로 생활비관리 패턴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총수입과 생활비의 관리권한이 부인에게 있는 케이스가 가장 많음을 확인하였다.

한지수와 이연숙(1998)의 연구에서는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간의 소득합산유형과 지출책임을 축으로 금전관리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 부부의 소득을 모두 부인이 관리하며 가계지출에 관해서도 전적으로 부인이 책임을 지는 유형이 전체 대상자의 42.1%를 점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뒤를 이어서 부부소득을 모두 부인이 관리하고 가계지출 책임의 대부분을 부인이 가진 유형이 21.3%, 부부소득을 모두 공동으로 관리하고 가계지출도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유형이 15.7%, 부인의 소득전부와 남편의 소득일부를 부인이 관리하고 가계지출의 많은 부분을 부인이 책임지고 남편은 가계지출의 일부를 책임지는 유형이 13%를 차지하고 있었다.

김현주(2003)의 연구에 의하면 배우자의 수입을 배우자가 각각 관리하는 비율은 39.6%로 가장 높았으나 여성만을 놓고 보면 배우자의 수입을 자신이 모두 관리한다고 응답비율이 45.7%로 가장 많음이 확인되었다.

박혜진(2006)은 맞벌이 가구의 여성을 대상으로 인터뷰조사 실시하여 소득관리형식에 따른 유형화를 실시하였다. 소득분리형은 남편과 부인의 소득을 독립된 것으로 취급하는데 부인의 소득과 남편의 소득의 용도가 다름을 지적하고 있다. 부인의 소득은 자녀의 교육 및 양육비, 식비 및 피복비, 세금 등의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 쓰고 있었으나 남편의 소득은 지출규모가 큰 주택구입자금, 재산 증식 등에 쓰이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소득부분결합형은 생활유지비용 예를 들어 주거비, 식비, 피복비, 양육비와 부부간에 합의된 항목을 추가적으로 정해서 총비용을 산정하고 필요한 부분을 부부가 공동분담한다는 점을 밝혀냈다. 이 유형의 부부들

은 부부 양쪽 모두 수입이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위에서 주로 우리나라의 가계관리에 관한 관련연구를 살펴보고았는데 다음으로 주로 영국의 사회학자 Paul 의 연구와 그의 영향을 받은 연구를 중심으로 서구와 일본에서의 연구 경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Paul(1980, 1983, 1994)은 가계 내에 들어 온 화폐에 남편과 부인이 관여한 정도와 부부의 가구지출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고 있는가를 축으로 유형화를 실시하여 부인관리형, 수당형시스템, 공동관리형, 독립관리형의 4개의 유형을 제시하였다. 공동관리시스템을 채택한 부부가 전체의 56%로 가장 많았으며, 수당시스템 22%, 부인관리형 14%, 독립관리시스템이 9%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일본에서는 御船(1995a, 1995b, 1995c)가 Paul등의 연구를 참고로 전업주부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가계관리 유형(御船은 가계조직이라고 칭함)을 분석하였다. 맞벌이 가구에서는 남편수입과 부인수입을 모두 공동으로 관리하고 그 중에서 각자 용돈을 쓰는 형태인 일체형이 30.6%, 그 다음으로 많은 유형이 남편의 수입은 남편이, 부인의 수입은 부인이 관리하지만, 부인은 가계비를 분담하지 않고 남편만이 가계비를 분담하는 형태인 남편에 의한 부양형이 약20%, 남편과 부인이 각자 수입을 관리하고 가계비를 공동으로 분담하는 형태인 각출형이 15%, 각자 수입을 관리하고, 가계비를 분담하는데 있어서 남편은 주택비를 담당하고 부인은 식료품비를 담당하는 것과 같이 비목을 정해 놓고 각자 분담하는 형태인 지출분담형이 7%로 다양한 가계관리 유형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Ahrne와 Roman(2001)의 스웨덴의 가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부부의 수입을 부부 두사람이 같이 관리하는 유형이 가장 많았는데 공동관리시스템이라는 응답은 10명중 6명, 일부공동관리시스템이라는 응답은 5명중 1명으로부터 얻어졌다.

이상에서 가계관리 유형에 관련한 선행연구로부터 각각의 연구에서 유형화의 축으로 삼고 있는 요인이 다양함을 확인하였다.

### 2. 가계관리 유형의 영향요인

#### (1) 남편소득

가계관리 유형에 관련한 많은 연구에서 남편의 소득이 가계관리 유형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밝혀내었다.

남편의 소득수준 그 자체를 요인으로 들고 있는 연구로는 御船(1995a)와 박혜진(2006)이 있다. 御船(1995a)는 일본의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서 남편의 연간 수입이 300만엔 미만인 그룹에서는 일체형이 가장 많았고, 600만엔 이상인 그룹에서는 부양형이 많음을 지적하였다. 박혜진(2006)

은 소득분리형과 소득부분결합형에 비해서 소득전체결합형은 남편의 소득수준이 낮은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Edwards(1981, 1982)도 남편소득이 가계관리 유형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즉 남편소득이 높을수록 가계운용에 있어서의 남편의 관여가 커진다고 하였다. 한편 한지수(1997)는 가계관리 유형(저자는 금전관리유형이라고 칭함)은 남편소득 그 자체보다는 남편소득이 가계로 들어오는 형태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밝혀냈다. 즉 처음부터 아내가 우선권을 갖도록 남편소득이 가계로 들어오는 경우는 아내완전관리형을 취하고 있었고, 남편이 자신의 소득에 대해 우선권을 가진 후 아내에게 일부를 주거나 공동으로 모으는 경우에는 아내위주 관리-남편일부참여형 혹은 일부공동-일부분리형의 가계관리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2) 남편소득 이외의 요인

선행연구에서 가계관리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남편소득 이외의 요인으로 밝혀진 것들은 남편의 연령, 부인의 연령, 남편의 직업지위, 부인의 직업지위, 부인의 교육수준 등이었다.

먼저 남편관련 요인들에 관한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Vogler(1994)는 남편의 학력, 남편의 직업지위, 직종이 가계관리 유형(저자는 가계 배분유형이라고 칭함)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다. 즉 남편이 서비스직에 종사하고 있을 때 수당형의 확률이 높아짐을 밝혀냈다. 또한 남편의 학력(저자는 교육적 성취로 측정하고 있음)이 높을 경우 일체형을 선택하는 확률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Vogler는 다른 요인을 통제한다고 해도 남편과 관련한 요인이 강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부부를 대상으로 조사 분석한 御船(1995a)의 연구에 따르면 남편의 직종이 공무원일 때 일체형이 많으며 금융, 보험, 부동산등의 직종에 종사할 때는 일체형이 적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한지수(1997)도 소득 이외의 변수로서 남편의 연령 및 직업지위에 따른 차이를 밝혀냈다. 신세대로 구분한 젊은 층에서 아내 완전관리형과 완전공동형이 많이 나타났으며 남편이 전문관리직일 때는 완전공동형이 많고, 사무직일 때는 아내완전관리형이 많은 점을 밝혀냈다.

다음으로 부인관련 요인들에 관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Morris(1993)는 부인의 수입이 낮을수록 부인관리형이 많아지며 부인이 취업하고 있을수록 즉 부인의 소득이 증가할수록 일체형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유사하게 Vogler & Paul(1994)는 가구소득수준에 주목하였는데 부인관리유형

은 다른 유형에 비해서 가구소득수준이 낮음을 밝혀냈다.

御船(1995a)는 부인이 시간제로 취업하고 있을 때 일체형이 많으며 부인이 전일제로 근무할 경우 남편과 부인이 가계비를 공동으로 분담하는 형태가 많다고 하였다. 박혜진(2006)은 소득분리형은 부인의 취업형태가 자영이며 소득수준이 높고 일정부분의 지출을 담당하고 있는 경향이 강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지수(1997)는 부인의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를 지적하였는데 부인의 교육수준이 높은 유형은 아내위주-남편일부참여형이며 아내위주-남편만주머니형에서는 부인의 교육수준이 낮음을 확인하였다.

그 이외에 남편과 부인의 취업형태를 동시에 고려한 연구도 찾아볼 수 있는데 Vogler(1994), Vogler와 Wiggins(2006)가 그것이다. Vogler(1994)는 부부가 모두 전일제로 취업한 경우에는 일체형을 선택확률이 높다고 하였고 Vogler와 Wiggins(2006)는 부부가 모두 전일제로 근무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독립관리형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남편만 취업하고 있는 경우, 혹은 부인이 시간제로 취업하고 있거나 전업주부일 경우에는 부인관리형이 많음도 확인하였다.

## (3) 이데올로기 요인

Edwards(1981, 1982)는 가계관리에 대해서 그 가족이 속해 있는 문화의 규범적인 기대가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다. 다시 말하면 많은 남편들이 가계를 통제하는 것을 자신의 권리라고 느낀다고 하는 것이다. Paul(1994) 또한 가계관리와 관련이 있는 이데올로기적 요인의 예로서는 부부의 불평등을 자연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것 혹은 부부간의 평등지향 등을 들고 있다.

Vogler(1994)는 실증연구의 결과로 성별역할분업에 관한 남편의 태도가 보수적이면 수당형의 선택확률이 높아지거나 혹은 일체형을 선택할 확률이 낮아진다는 점을 밝혀내었다.

Tichenor(1999)의 연구도 이데올로기 요인의 영향을 뒷받침하는 결과를 얻어냈다. 즉 남편보다 부인의 수입, 직업적 지위가 높은 22쌍을 인터뷰하였는데 부인의 소득이 많은 경우에 남편보다 부인 자신이 가정내에서 권력을 가진 것으로 비춰지는 것을 염려했으며 그 결과로 부인이 주도하여 가계관리를 하기보다는 남편과 공동으로 관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Vogler와 Wiggins(2006)은 남편의 가족부양자 역할의식이 가계관리 유형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측정하였는데 남편이 가족의 부양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는 전통적인 성별역할태도에 찬성하는 사람은 수당형이나 부인관리형을 선택하였으며, 독립형을 선택하는 사람은 남편의 가족

부양자 역할에 반대하는 경향을 드러냈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사회 경제적 요인, 실무적요인, 이데올로기적 요인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기로 한다.

###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맞벌이 가구의 가계관리 유형의 특성과 각 유형을 선택하는데 있어서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가계관리를 수입관리 유형과 가계비관리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특성 및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가계관리 유형의 전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1-1: 수입관리 유형의 전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1-2: 가계비관리 유형의 전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서 가계관리 유형은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1: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서 수입관리 유형은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2: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서 가계비관리 유형은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가계관리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 연구문제 3-1: 수입관리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 연구문제 3-2: 가계비관리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 2. 자료의 특성

본 연구에는 F-GENS한국패널조사 2003(제1차년도 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F-GENS 한국패널조사<sup>1)</sup>는 일본 오차노미즈여자대학 COE프로그램「젠더연구의 프론티어」사업의 일환으로 동아시아의 「가족·일·가계에 관한 국제 비교연구」를 위해서 실시되었다. 분석대상으로는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25-44세(2004년 1월 1일 현재)의 남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제1차년도(2003년 실시)조사는 2004년 1-2월에 실시되었다. 조사항목은 성별, 본인이력(연령, 학

력, 취업이력)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이력(연령, 학력, 취업이력)등의 회고적 데이터와 현재의 일(직종, 업종, 기업규모, 종사상의 지위, 직위), 가족(동거가족 및 형제, 자녀에 관한 정보), 가계의 수입 및 소비지출, 자산, 부채상황, 소비지출항목(비목별 소비지출, 가구원 누구를 위한 소비지출),가계관리방법 등 다양한 영역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

분석대상은 본 연구에서 주목한 가계관리 유형(수입관리 유형과 가계비관리 유형)에 대한 응답이 이용가능한 맞벌이 가구인 399가구로 한정하였다. 위의 조사에서는 남성응답자와 여성응답자 각각으로부터 연령, 학력, 취업, 연간소득, 노동시간 등 동일한 질문항목에 관해서 본인 정보와 배우자 정보를 동시에 획득하였다. 본 연구는 가구내에서의 가계관리 유형에 초점을 맞춘 것이므로 데이터의 손실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응답자의 본인 정보와 배우자 정보를 합해서 각 가구의 남편과 부인의 정보로서 분석에 이용하였다.

원자료는 25-44세의 남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본인의 연령을 중심으로 한 것이므로 본 연구에 포함된 남편과 부인의 연령은 44세를 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 3. 측정도구의 구성

##### 1) 수입관리 유형과 가계비관리 유형

수입관리 유형과 가계비관리 유형을 조사시의 분류항목을 이용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다만, 미리 설정된 유형 이외에 자유응답으로부터 몇가지 유형을 추출하여 분석에 포함시켰다. 구체적으로 수입을 부부가 공동관리하는지 각각 관리하는지와 공동의 가계비를 누가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를 수입관리 유형, 후자를 가계비관리 유형으로 명명하였다.

##### 2) 수입관리 유형과 가계비관리 유형의 관련변수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가계관리 유형과 관련이 있는 변수들을 사회 경제적 요인, 실무적 요인, 이데올로기 요인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다음의 변수를 선정하였다. 사회 경제적 요인으로는 본인과 배우자의 취업형태와 연간 평균수입을, 실무적 요인으로는 본인과 배우자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을, 이데올로기 요인으로는 경제공동체 의식으로서 남편수입에 대한 귀속의식과 부인수입에 대한 귀속의식을 포함시켰다. 그 외에 통제변수로서 남편과 부인의 연령, 남편과 부인의 학력, 결혼년수를 이용하였으며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분석에 이용된 모든 변수는 본인에 대한 정보와 배우자에

1) 본 자료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調査の目的と方法(第1章)」『お茶の水女子大学家族・仕事・家計に関する 国際比較研究—韓国パネル調査第1年度報告書』(F-GENS Publication Serise)(御船, 李秀眞, 2005)을 참조하기 바람.

대한 정보를 결합해서 각 가구의 남편과 부인의 정보로서 이 용하였다. 남편의 취업형태를 예로 들면 응답자가 남성일 경우에는 본인의 취업형태를 취하고, 응답자가 여성일 경우에는 배우자의 취업형태를 취해서 하나의 변수로 통합하였다.

경제공동체 의식은 자신의 수입/배우자의 수입에 대한 귀속의식에 대해서 “현재 귀하의 수입(배우자의 수입) 이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해서 (1) 나의 것 (2) 배우자의 것 (3) 부부공동의 것이라는 응답을 얻었으며, (1)과 (2)의 응답을 합해서 (1) 부부 각자의 것 (2) 부부 공동의 것으로 재 분류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을 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빈도분석과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수입관리 유형과 가계비관리 유형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수입관리 유형 및 가계비관리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항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분석대상가구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분석대상가구는 맞벌이의 399가구이다. <표 1>에는 각 가구의 남편과 부인의 특성을 제시하였다.

남편의 연령분포는 25-34세가 20.1%, 35-44세가 63.2%, 45세 이상이 16.8%이었으며, 부인의 연령분포는 25-34세가 35.8%, 35-44세가 64.2%였다.

학력의 분포를 보면 남편의 약 60%가 대졸이상이며 부인은 약 60%가 고졸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다.

결혼년수는 5년미만이 18.3%, 5-9년은 22.3%, 10-14년은 33.3%, 15년이상은 26.1%의 분포로 나타났다. 가족형태는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부부와 자녀, 부모로 구성된 3세대가족은 11.8%, 부부만으로 구성된 가족은 8.3%를 차지하고 있었다.

남편과 부인의 취업관련 특성으로 취업형태, 하루 평균 노동시간, 연간 평균수입을 제시하였다. 남편의 취업형태는 기업 및 민간단체의 정직원, 관공서의 정직원 등 전일제 취업형태가 56.3%로 가장 많았고, 36.9%가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부인의 48.6%가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전일제 취업이 31.7%, 시간제 취업이 19.7%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노동시간을 보면 남편의 41.0%가 하루평균9-10시간 일하고 있었으며, 10시간 이상 일한다는 남편도

<표 1> 분석대상가구의 일반적 특성

분석대상가구의 특성		빈도(%)	
연령	남편	25-34세	80(20.1)
		35-44세	252(63.2)
		45세이상	67(16.8)
	소계	399(100.0)	
부인	25-34세	143(35.8)	
	35-44세	256(64.2)	
	소계	399(100.0)	
학력	남편	고졸 이하	169(42.4)
		대졸 이상	230(57.6)
	소계	399(100.0)	
	부인	고졸 이하	241(60.4)
대졸 이상		158(39.6)	
소계	399(100.0)		
결혼년수	5년 미만	73(18.3)	
	5-9년	89(22.3)	
	10-14년	133(33.3)	
	15년 이상	104(26.1)	
소계	399(100.0)		
가족형태	부부	33( 8.3)	
	부부와 자녀	280(70.2)	
	부부, 자녀, 부모	47(11.8)	
	기타	39( 9.8)	
소계	399(100.0)		
취업형태	남편	전일제	223(56.3)
		시간제	27( 6.8)
		자영업	146(36.9)
	소계	396(100.0)	
부인	전일제	124(31.7)	
	시간제	77(19.7)	
	자영업	190(48.6)	
소계	391(100.0)		
하루평균 노동시간	남편	8시간 미만	14( 3.5)
		8시간	99(24.9)
		9-10시간	163(41.0)
		10시간 이상	122(30.7)
소계	398(100.0)		
부인	8시간 미만	61(15.3)	
	8시간	129(32.3)	
	9-10시간	104(26.1)	
	10시간 이상	105(26.3)	
소계	399(100.0)		
연간평균수입	남편	2500만원 미만	173(43.4)
		5000만원 미만	174(43.6)
		5000만원 이상	52(13.0)
	소계	399(100.0)	
부인	1500만원 미만	173(43.4)	
	3000만원 미만	154(38.6)	
	3000만원 이상	72(18.1)	
소계	399(100.0)		
수입귀속의식	남편수입	부부 각자의 것	33( 8.3)
		부부 공동의 것	365(91.7)
	소계	398(100.0)	
부인수입	부부 각자의 것	52(13.1)	
	부부 공동의 것	347(87.0)	
소계	399(100.0)		

주. 학력구분에서 대졸이상 학력에는 2년제대졸 학력이 포함되어 있다.

〈표 2〉 수입관리 유형

수입관리유형	가계비분담방식	빈도(%)	
남편수입과 부인수입을 모두 공동으로 관리	공동관리분에서 남편과 부인의 용돈을 총당	250(62.7)	250(62.7)
남편수입은 남편이, 부인수입은 부인이 각자관리	가계비 공동분담	31( 7.8)	66(16.6)
	가계비 각자분담 (예를 들어 남편은 집세, 부인은 식료품비 등)	16( 4.0)	
	남편이 가계비 부담	14( 3.5)	
	부인이 가계비 부담	5( 1.3)	
남편수입과 부인수입을 부인이 모두 관리	남편이 가계비 부담	1( 0.3)	54(13.6)
	남편에게 용돈건넨 (가계비 분담방식 명확하지 않음)	16( 4.0)	
		37( 9.3)	
남편수입과 부인수입을 남편이 모두 관리	부인에게 가계비를 건넨 (가계비 분담방식 명확하지 않음)	5( 1.3)	10( 2.6)
		5( 1.3)	
기타	-	19( 4.8)	19(4.8)
합계		399(100.0)	399(100.0)

30.7%를 차지하였다. 부인의 경우 노동시간이 8시간인 경우가 32.3%로 가장 많았으나, 9-10시간, 10시간이상이라는 응답도 각각 26%정도를 차지하였다.

남편과 부인의 연간 평균수입의 분포는, 남편은 2500만원 미만이 43.4%, 25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이 43.6%를 차지하였으며 5000만원 이상은 13.0%였다. 한편, 부인의 경우는 1500만원 미만이 43.4%로 약 절반을 차지하였으며, 1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이 38.6%, 3000만원 이상이 18.1%로 나타났다.

수입귀속의식을 보면, 남편수입, 부인수입이 부부공동의 것이라는 응답이 약90%로 나타났다.

2. 수입관리 유형과 가계비관리 유형의 전반적 경향

각 가구에서 수입을 부부가 공동으로 관리하는지 각자 관리하는지의 수입관리 유형은 〈표 2〉와 같이 나타났다. 조사에서는 수입관리 유형과 가계비 분담방식을 동시에 질문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이후의 분석에서는 수입관리 유형에 초점을 맞추었다. 다만, 표에서는 조사된 가계비 분담방식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시하였다.

수입관리 유형 중 가장 보편적인 유형은 남편수입과 부인수입을 모두 부부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유형(수입공동관리라 칭함)이었으며 분석대상가구의 62.7%가 여기에 속하였다. 다음으로는 남편수입은 남편이, 부인수입은 부인이 각자 관리하는 유형(수입각자관리라 칭함)이 16.6%를 차지하였고, 남편수입과 부인수입을 부인이 모두 관리하는 유형(수입부인관리라 칭함)은 13.6%로 그 뒤를 이었다. 남편수입과 부인수입을 남편이 모두 관리하는 유형(수입남편관리라 칭함)은 2.6%로 소수에 불과했다.

다음으로 가계비관리 유형의 분포는 〈표3〉에 제시한 바와

〈표 3〉 가계비관리 유형

가계비 관리유형	빈도(%)
주로 남편이 관리	35( 8,8)
주로 부인이 관리	286(71.7)
부부가 공동으로 관리	73(18.3)
부부가 각자관리	3( 0.8)
기타	2( 0.5)
합계	399(100.0)

같다. 가계비 관리의 경우 주로 부인이 관리하는 유형(가계비 부인관리라 칭함)이 71.7%로 이 유형이 가장 보편적임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부부가 관리를 공동으로 하는 유형(가계비 공동관리라 칭함)은 18.3%로 많았고, 주로 남편이 관리하는 유형(가계비 남편관리라 칭함)은 8.8%를 차지하였다. 부부가 각자관리하는 유형은 분석대상가구 중 3가구(0.8%)에 불과하였다.

3.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수입관리 유형과 가계비관리 유형

1)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수입관리 유형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수입관리 유형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수입 공동관리 유형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남편과 부인의 연령과 학력별로 보면, 남편연령이 45세 이상, 부인연령 35-44세에서 많았고, 남편과 부인 모두 고졸이하의 학력에서 많이 나타났다. 또한 부인의 취업형태가 전일제 혹은 자영업, 하루 평균 노동시간이 9-10시간인 경우에 많이 볼 수 있었다. 또한 남편의 연간 평균수입이 2500만원 미만

〈표 4〉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수입관리 유형

특성	수입관리유형	공동관리	각자관리	부인관리	남편관리	빈도%	$\chi^2$ 검증	
연령	남편	25-34세	63.3	12.9	20.8	3.9	77(100)	5.707
		35-44세	66.4	18.1	13.5	2.1	238(100)	
		45세이상	67.7	20.0	9.2	3.1	65(100)	
	부인	소계	65.8	17.4	14.2	2.6	380(100)	
		남편평균연령(세)	39.5	40.2	38.4	39.3		
		부인평균연령(세)	36.5	36.3	35.6	35.0		
학력	남편	고졸 이하	67.9	11.7	16.7	3.7	162(100)	7.796*
		대졸 이상	64.2	21.6	12.4	1.8	218(100)	
		소계	65.8	17.4	14.2	2.6	380(100)	
	부인	고졸 이하	66.8	15.5	14.7	3.1	232(100)	
		대졸 이상	64.2	20.3	13.5	2.0	148(100)	
		소계	65.8	17.4	14.2	2.6	380(100)	
결혼년수	남편	5년 미만	61.8	17.7	19.1	1.5	68(100)	6.506
		5-9년	60.0	22.4	14.1	3.5	85(100)	
		10-14년	71.1	15.6	11.7	1.6	128(100)	
		15년 이상	66.7	15.2	14.1	4.0	99(100)	
	부인	소계	65.8	17.4	14.2	2.6	380(100)	
		평균결혼년수(년)	10.6	10.1	10.2	11.1		
취업형태	남편	전일제	64.9	18.5	14.7	1.9	211(100)	3.618
		시간제	76.0	12.0	12.0	0.0	25(100)	
		자영업	64.5	17.0	14.2	4.3	141(100)	
		소계	65.5	17.5	14.3	2.7	377(100)	
	부인	전일제	67.2	18.5	13.5	0.8	119(100)	
		시간제	62.5	20.8	15.3	1.4	72(100)	
자영업		66.3	14.4	14.9	4.4	181(100)		
소계		65.9	16.9	14.5	2.7	372(100)		
연간평균수입	남편	2500만원 미만	69.9	13.5	12.9	3.7	163(100)	14.014*
		5000만원 미만	62.7	18.7	18.1	0.6	166(100)	
		5000만원 이상	62.8	25.5	5.9	5.9	51(100)	
		소계	65.8	17.4	14.2	2.6	380(100)	
	부인	연간평균수입(만원)	2,842	3,638	2,930	3,300		
		1500만원 미만	61.9	18.4	15.3	4.3	163(100)	
3000만원 미만		69.6	15.5	13.5	1.4	148(100)		
3000만원 이상		66.7	18.8	13.0	1.5	69(100)		
하루평균 노동시간	남편	소계	65.8	17.4	14.2	2.6	380(100)	17.971*
		연간평균수입(만원)	1,808	1,966	1,853	1,124		
		8시간 미만	53.9	38.5	0.0	7.7	13(100)	
		8시간	69.8	17.7	11.5	1.0	96(100)	
	부인	9-10시간	63.8	17.1	18.4	0.7	152(100)	
		10시간 이상	66.1	15.3	12.7	5.9	118(100)	
소계		65.7	17.4	14.3	2.6	379(100)		
평균노동시간(시간)		10.1	9.7	10.2	11.7			
수입귀속의식	남편수입	8시간 미만	64.9	22.8	12.3	0.0	57(100)	10.006**
		8시간	64.3	18.3	15.1	2.4	126(100)	
		9-10시간	73.5	11.2	12.2	3.1	98(100)	
		10시간 이상	60.6	19.2	16.2	4.0	99(100)	
	부인수입	소계	65.8	17.4	14.2	2.6	380(100)	
		평균 노동시간(시간)	9.2	8.8	9.3	10.3		
부부 각자의 것		45.2	35.5	19.4	0.0	31(100)		
부부 공동의 것		67.5	15.8	13.8	2.9	348(100)		
부인수입	소계	65.7	17.4	14.3	2.6	379(100)	22.149***	
	부부 각자의 것	42.0	40.0	16.0	2.0	50(100)		
	부부 공동의 것	69.4	13.9	13.9	2.7	330(100)		
	소계	65.8	17.4	14.2	2.6	380(100)		

주. 기타를 제외한 숫자임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인 경우에 많이 나타났다. 수입귀속의식을 보면, 남편수입과 부인수입 각각에 대해서 부부 공동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다음으로 수입 각자관리 유형은 부부의 연령 및 학력별로 보면 남편의 연령층이 높을수록 많이 나타나는 한편, 부인은 35-44세에서보다는 25-34세에서 많이 나타났다. 학력은 남편과 부인이 각각 대졸이상일 경우 많이 나타나는 유형이었다. 취업형태와 노동시간의 특징을 보면, 남편의 전일제취업형태에서, 부인의 시간제 취업형태에서 많았다. 남편의 연간 평균수입이 5000만원 이상일 때, 부인의 연간 평균수입은 3000만원 이상일 경우가 많았다. 수입귀속의식은 부부 각각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어서 수입 부인관리 유형의 특성을 보면, 결혼년수가 5년미만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남편이 전일제이거나 자영업일 때, 부인은 시간제일 때 많았으며, 남편의 노동시간이 9-10시간일 때, 부인의 노동시간이 8시간인 특징이 있었다. 부인의 연간 평균수입은 부인이 1500만 원 미만일 때 많았으며 수입귀속의식은 남편수입과 부인수입이 각각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수입 남편관리 유형을 보면, 결혼년수가 15년 이상일 때 약간 많았고, 남편과 부인이 각각 자영업에 종사할 때, 또한 연간 평균수입은 남편 5000만원 이상일 때, 부인은 1500만원 미만일 때 가장 많은 유형이었다. 수입귀속의식은 남편수입과 부인수입에 대해서 각각 부부 공동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상에서 남편과 부인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과 수입관리 유형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chi^2$ 검증의 결과 남편의 학력, 남편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 남편의 연간 평균수입 등 남편 관련 요인이 수입관리 유형과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수입귀속의식이 수입관리 유형과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수입 공동관리 유형과 수입 각자관리 유형은 수입귀속의식과 관리유형이 일치하였으나 수입 부인관리 유형과 수입 남편관리 유형은 수입귀속의식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2)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가계비관리 유형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가계비관리 유형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가계비 남편관리 유형의 특성을 보면, 남편연령과 부인연령은 25-34세인 경우, 취업형태별로는 남편과 부인 각각 자영업일 때 많이 나타났다. 또한 연간 평균수입을 보면 남편은 5000만원이상일 때, 부인은 1500만원 미만인 경우가 많았다. 수입귀속의식은 남편수입과 부인수입이 각각의 것이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가계비 부인관리 유형은 세가지 유형 중 가장 많은 가구에서 나타나는 유형이었는데 이 유형을 택한 가구의 특성은 부인이 35-44세, 대졸이상이었으며, 결혼년수는 5년미만이었다. 또한 부인이 시간제 취업형태를 취하고 있었으며, 근무시간이 9-10시간이상이고, 연간 평균수입은 3000만원 이상인 경우가 많았다. 수입귀속의식은 남편수입과 부인수입이 각각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가계비 공동관리 유형을 선택하고 있는 가구의 남편과 부인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편이 25-34세로 비교적 젊은 층이고, 부인도 25-34세에서 많이 나타났다. 남편과 부인의 학력이 각각 대졸이상인 경우, 결혼년수가 5년미만일 때 많이 나타났다. 취업형태로는 남편과 부인이 각각 자영업일 때, 남편과 부인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이 각각 10시간이상인 경우에서 많이 볼 수 있었다. 수입귀속의식은 남편수입과 부인수입이 부부 공동의 것이라고 생각할 때 많이 나타나는 유형이었다.

이상에서 남편과 부인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과 가계비관리 유형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chi^2$ 검증의 결과 수입관리 유형과 마찬가지로 남편의 취업형태, 남편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 남편의 연간 평균수입 등 남편관련 요인이 가계비관리 유형과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4. 수입관리 유형 및 가계비관리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수입관리 유형 및 가계비관리 유형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기 위해 다항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는 선행연구 Paul(1989)와 御船(1995a)의 연구를 토대로 사회 경제적 요인, 실무적 요인, 이데올로기 요인의 변수를 투입하였다. 수입관리 유형에 대한 다항 로지스틱 분석결과는 수입 각자관리를 기준집단으로하여 <표 6>에 제시하였다.

통제변수 중 수입관리 유형에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 변수는 부인학력을 제외한 남편연령 및 남편학력과 부인연령, 결혼년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연령의 증가는 수입 각자관리 유형에 비해서 수입 공동관리 유형을 선택할 확률을 10% 정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인연령의 증가는 수입 남편관리 유형의 선택확률을 38%정도 낮추며, 남편의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수입 부인관리 유형의 선택확률이 32%정도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혼년수의 증가는 수입 각자관리 유형에 비해서 수입 부인관리 유형과 수입 남편관리 유형의 선택확률을 각각 1.1배, 1.5배정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경제적 요인 중에서는 남편의 연간 평균수입은 수입 공동관리 유형의 선택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편의 연간 평균수입이 증가할

〈표 5〉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가계비관리 유형

특성	수입관리유형	남편관리	부인관리	공동관리	빈도%	$\chi^2$ 검증		
연령	남편	25-34세	11.7	72.7	15.6	77(100)	1.360	
		35-44세	8.0	72.8	19.2	250(100)		
		45세이상	9.0	71.6	19.4	67(100)		
	소계	8.9	72.6	18.5	394(100)			
	부인	25-34세	10.1	70.5	19.4	139(100)		0.563
		35-44세	8.2	73.7	18.0	255(100)		
소계		8.9	72.6	18.5	394(100)			
남편평균연령(세)	38.9	39.5	39.6					
학력	남편	고졸 이하	11.3	73.2	15.5	168(100)	3.429	
		대졸 이상	7.1	72.1	20.8	226(100)		
		소계	8.9	72.6	18.5	394(100)		
	부인	고졸 이하	10.5	71.6	18.0	239(100)		1.886
		대졸 이상	6.5	74.2	19.4	155(100)		
		소계	8.9	72.6	18.5	394(100)		
부인평균연령(세)	35.9	36.4	36.4					
결혼년수	남편	5년 미만	4.3	75.7	20.0	70(100)	4.766	
		5-9년	13.6	68.2	18.2	88(100)		
		10-14년	7.5	74.4	18.1	133(100)		
		15년 이상	9.7	71.8	18.5	103(100)		
	소계	8.9	72.6	18.5	394(100)			
	평균결혼년수(년)	10.6	10.6	10.4				
취업형태	남편	전일제	5.0	78.1	16.9	219(100)	16.632**	
		시간제	3.7	81.5	14.8	27(100)		
		자영업	15.9	62.8	21.4	145(100)		
		소계	9.0	72.6	18.4	391(100)		
	부인	전일제	7.3	74.0	18.7	123(100)		2.068
		시간제	7.8	76.6	15.6	77(100)		
자영업		10.7	69.5	19.8	187(100)			
소계	9.0	72.4	18.6	387(100)				
연간평균수입	남편	2500만원 미만	9.4	71.8	18.8	170(100)	11.053*	
		5000만원 미만	5.2	74.6	20.2	173(100)		
		5000만원 이상	19.6	68.6	11.8	51(100)		
		소계	8.9	72.6	18.5	394(100)		
	연간평균수입(만원)	3,818	2,938	2,752				
	부인	1500만원 미만	9.9	70.2	19.9	171(100)		0.959
3000만원 미만		7.9	74.3	17.8	152(100)			
3000만원 이상		8.5	74.7	16.9	71(100)			
소계		8.9	72.6	18.5	394(100)			
연간평균수입(만원)	1,691	1,833	1,831					
하루평균 노동시간	남편	8시간 미만	28.6	57.1	14.3	14(100)	13.961*	
		8시간	4.1	76.5	19.4	98(100)		
		9-10시간	6.8	75.8	17.4	161(100)		
		10시간 이상	13.3	66.7	20.0	120(100)		
	소계	8.9	72.5	18.6	393(100)			
	평균노동시간(시간)	10.6	9.9	10.3				
부인	8시간 미만	6.7	75.0	18.3	60(100)	4.419		
	8시간	10.2	70.9	18.9	127(100)			
	9-10시간	5.8	78.6	15.5	103(100)			
	10시간 이상	11.5	67.3	21.2	104(100)			
	소계	8.9	72.6	18.5	394(100)			
	평균 노동시간(시간)	9.4	9.1	9.5				
수입귀속의식	남편수입	부부 각자의 것	9.6	80.7	9.7	31(100)	1.681	
		부부 공동의 것	8.8	72.1	19.1	362(100)		
		소계	8.9	72.8	18.3	393(100)		
	부인수입	부부 각자의 것	14.0	74.0	12.0	50(100)		3.021
		부부 공동의 것	8.1	72.4	19.5	344(100)		
		소계	8.9	72.6	18.5	394(100)		

주. 기타를 제외한 숫자임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표 6〉 수입관리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수입 공동관리			수입 부인관리			수입 남편관리		
	B	Z	Odds비	B	Z	Odds비	B	Z	Odds비
<b>【통계변수】</b>									
남편연령	-.103	-1.67 †	.902	-.184	-2.26*	.832	-.029	-0.19	.971
부인연령	.045	0.63	1.046	.005	0.05	1.005	-.476	-2.19*	.621
남편학력	-.256	-1.42	.774	-.391	-1.66 †	.676	.221	0.47	1.247
부인학력	.034	0.18	1.035	.081	0.31	1.084	-.467	-0.74	.627
결혼년수	.056	1.03	1.058	.132	1.73 †	1.140	.408	2.18*	1.503
<b>【사회경제적요인】</b>									
남편취업형태									
- 자영업	-.305	-0.92	.737	-.368	-0.86	.692	-.249	-0.32	.779
부인취업형태									
- 전일제	.251	0.56	1.286	.036	0.06	1.037	.445	0.28	1.560
- 자영업	.327	0.75	1.386	.251	0.45	1.285	1.454	1.16	4.281
남편의 연간평균수입	-.001	-1.96*	.999	-.001	-0.74	.999	.000	0.83	1.000
부인의 연간평균수입	-.001	0.33	1.000	.000	0.51	1.000	-.001	-1.09	.999
<b>【실무적 요인】</b>									
남편의 하루평균 노동시간	.032	0.46	1.032	.046	0.51	1.047	.275	1.81 †	1.317
부인의 하루평균 노동시간	.007	0.10	1.007	.013	0.14	1.013	.070	0.42	1.073
<b>【이데올로기 요인】</b>									
남편수입에 대한 귀속의식									
- 부부 공동의 것	-.283	-0.14	.754	-.501	-0.51	.606	20.087	3.17**	5.290
부인수입에 대한 귀속의식									
- 부부 공동의 것	1.537	2.80**	4.649	1.082	1.28	2.950	.273	0.21	1.313
정수	3.027			5.964			-11.763		
N				368					
Log likelihood				-322.7409					
$\chi^2(df)$				60.30(42)*					
유사결정계수				0.0854					

주. 기준집단: 수입 각자관리 유형  
 남편취업형태 기준집단(피고용자: 전일제 및 시간제 포함)  
 부인취업형태 기준집단(시간제고용)  
 남편수입 및 부인수입에 대한 귀속의식 기준집단(부부 각자의 것)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수록 수입 각자관리 유형에 비해서 수입 공동관리 유형의 선택확률을 약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무적 요인 중에서는 남편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이 수입 남편관리 유형의 선택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하루 평균 노동시간이 길어질수록 수입 각자관리 유형에 비해서 수입 남편관리 유형의 선택확률이 1.3배정도 높아진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데올로기 요인 중에서 남편수입에 대한 귀속의식은 수입 남편관리 유형의 선택에, 부인수입에 대한 귀속의식은 수입 공동관리 유형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수입이 부부의 공동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수입 각자관리 유형에 비해서 수입 남편관리 유형의 선택확률이 5배이상 높아짐이 확인되었으며, 부인수입을 부부 공동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수입 각자관리 유형에 비해서 수입 공동관리 유형의 선택확률이 2.8배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가계비관리 유형에 대한 다항 로지스틱 분석결과는 가계비 공동관리를 기준집단으로하여 〈표7〉에 제시하였다.

통계변수 중 가계비관리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남편의 학력이었다. 남편의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가계비 공동관리 유형에 비해서 가계비 남편관리 유형의 선택확률이 28%정도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가계비 부인관리 유형의 선택확률도 33%정도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사회 경제적 요인 중에서는 남편의 취업형태와 남편의 연간 평균수입이 가계비 남편관리 유형의 선택확률과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남편취업형태가 피고용자인 경우에 비해서 자영업일 경우에 가계비 공동관리 유형보다 가계비 남편관리 유형의 선택확률이 2.5배 높아지며, 남편의 연간 평균수입의 증가도 가계비 남편관리 유형의 선택확률을 약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데올로기 요인 중 부인수입에 대한 귀속의식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부인수입을 부부 공동의 것으로 생각하면 가계비 공동관리 유형에 비해서 가계비 남편관리 유형의 선택확률을 80% 정도 낮추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실무적 요인은 가계비관리 유형의 선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가계비관리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계비 남편관리			가계비 부인관리		
	B	Z	Odds비	B	Z	Odds비
<b>【통제변수】</b>						
남편연령	-.149	-1.56	.861	-.021	-0.37	.979
부인연령	.039	0.37	1.041	.028	0.41	1.028
남편학력	-.322	-1.16	.724	-.449	-2.66**	.678
부인학력	-.135	-0.43	.873	.160	0.87	1.174
결혼년수	.072	0.78	1.069	.002	0.03	1.001
<b>【사회경제적요인】</b>						
남편취업형태						
자영업	.906	1.91 †	2.474	-.366	-1.22	.693
부인취업형태						
전일제	.004	0.01	1.003	-.001	-0.01	.999
자영업	.124	0.19	1.132	-.100	-0.24	.904
남편의 연간평균수입	.000	2.43**	1.100	.000	1.34	1.000
부인의 연간평균수입	-.001	-0.39	.999	-.001	-0.49	.999
<b>【실무적 요인】</b>						
남편의 하루평균 노동시간	.023	0.25	1.024	-.072	-1.16	.931
부인의 하루평균 노동시간	-.059	-0.58	.943	-.056	-0.82	.946
<b>【이데올로기 요인】</b>						
남편의 수입에 대한 귀속의식						
- 부부 공동의 것	.292	0.25	1.339	-.704	-0.80	.495
부인의 수입에 대한 귀속의식						
- 부부 공동의 것	-1.636	-1.95*	.195	-.111	-0.17	.895
정수	4.877			4.363		
N	383					
Log likelihood	-271.607					
$\chi^2(df)$	40.36(28) †					
유사결정계수	0.0692					

주. 기준집단: 가계비 공동관리 유형  
 남편취업형태 기준집단(피고용자: 전일제 및 시간제 포함)  
 부인취업형태 기준집단(시간제고용)  
 남편수입 및 부인수입에 대한 귀속의식 기준집단(부부 각자의 것)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선행연구들에서 정의한 각각의 가계관리 유형들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에서 수입과 지출을 가계관리의 기준요소로 취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상의 결과들을 선행연구들에 비추어 보면 남편의 연령, 학력, 소득, 취업형태, 부인의 직업지위, 취업형태 등이 수입과 가계비 등의 가계관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부합한 결과를 얻었다.

###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가정내에서 행해지는 수많은 의사결정 사항 중의 하나로서만 다루어져 온 가계관리가 의사결정 당사자인 부부가 의식하고 있거나 혹은 의식하고 있지 않다고 해도 어떠한 형태로든 부부간의 조정행위의 결과라는 점에 착안하였다. 이를 토대로 가계관리를 누가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맞벌이 가구의 가계관리의 특성과 영향요인을 검

증하였다. 우리나라의 각 가구에서 이루어지는 가계관리의 유형을 추출해 내기 위한 과정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가계관리의 요소를 수입관리와 가계비관리 두가지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부부관계를 규명하는 지표로서 가계관리 유형의 적용가능성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분석대상가구의 약 60%가 선택하고 있는 수입관리 유형은 부부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수입 공동관리 유형이었다. 수입 공동관리 유형은 부부간의 자원 공유도가 높은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수입관리와 가계비 관리와의 관계 뿐만이 아니라 수입관리와 가계비관리의 중간 과정에 있는 가계비 분담방식에 따라서 가구가 취하고 있는 가계관리의 성격은 달라진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표1〉에 되돌아가서 보면 수입 공동관리 유형은 공동관리분에서 남편과 부인의 용돈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가계비를 분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Wilson(1987)은 부부가 가계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공동의 계좌를 가지고 있는 것이 화폐자원의 공유에 정의 영향을 끼치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오히려 돈에 접근할 권리, 소비지출의 결정권 등에 대한 불평등을 감추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박혜진(2006)은 남편과 부인의 소득을 독립된 것으로 취급하는 소득분리형에 있어서 부인의 소득은 자녀의 교육/양육비, 식비/피복비, 세금 등의 생활비를 충당하는데 쓰고 있었고, 한편 남편의 소득은 지출규모가 큰 주택구입자금, 재산 증식 등에 쓰이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단지 수입을 공동으로 관리한다고 해서 부부간의 자원 공유도가 높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둘째, 가계비관리 유형 중 가장 보편적인 형태는 가계비를 주로 부인이 관리하는 가계비 부인관리 유형으로 분석대상가구의 약70%가 이 유형을 선택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가계비를 부인이 관리하는 경우에 부인이 반드시 가족의 경제자원을 통제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할 것인가. Colavecchia(2005)는 돈에 관련한 일들이 중간소득층의 여성에게 있어서는 가사와 근접한 일임을 밝혀내었으며 많은 여성들에게 있어서 돈을 관리하는 것에 관여하는 일은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거나 혹은 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밝혀내었다. 이는 Ahrne와 Roman(2001)이 역설한 바와 같이 부부의 한쪽이 일상의 가계를 꾸려나가고 있으며 다른 한쪽이 보다 크고 중요한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 등 일상적인 경제자원의 관리와 이러한 관리행동에 대한 통제는 다른 수준의 결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부인수입에 대한 귀속의식은 수입관리 유형과 가계비관리 유형의 선택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인수입을 부부 공동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수입 각자관리 유형에 비해서 수입 공동관리 유형의 선택확률은 높아지고, 가계비 남편관리 유형보다는 가계비 공동관리 유형의 선택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McRae(1987)는 가계 배분시스템을 밝혀내는 과정에서 성별로 뚜렷하게 분리된 행동방식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는데 부인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가계 배분유형에 상관없이 자신은 식료품쇼핑에 책임이 있다고 가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Nyman(1999)은 부부가 공동관리형을 택하고 있는지 독립형을 택하고 있는지에 상관없이 돈을 사용하고 돈에 접근하는데 있어서 평등한 공유를 중시하고 있는데 반해 실제로는 소비에 있어서 평등하다고 느끼지 않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의식과 실상의 괴리의 이유를 두가지 들고 있는데 하나는 일상적인 가계의 관리는 사실상 부인이 맡고 있다는 점, 두번째는 소비를 하는데 있어서 식료품과 아이들을 포함한 영역은 불투명한 영역이어서 부인을 위한 소비로 여겨지곤 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Nyman(1999)의 연구는 부인이 가계관리를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부부간의 지출의 격차를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인의 자발적인 소비억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지

적한 木村(2003)의 지적과도 통하는 바가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가계관리유형으로 부부관계를 설명하는 지표로 삼기 위해서는 단순히 가계비를 누가 관리하느냐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관리행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부부간의 개인소비의 격차 등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성이 있음이 시사되었다.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수입관리 유형과 가계비관리 유형은 불충분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부부관계를 규명하는 지표로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가계관리의 구성요소를 수입관리와 가계비관리로 단순화하여 각각에 대하여 그 유형을 파악하였으나, 수입관리와 가계비관리의 중간과정에서 일어나는 가계비의 분담방식을 고려한다면 보다 정교하게 가계관리 유형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수입공동관리에 있어서 부부의 용돈은 어떤 방식으로 분배할 것인가를 고려할 때, 남편이 자신의 용돈을 미리 떼고 공동관리할 수입으로 넣을 것인가 아니면 공동관리할 수입으로 넣은 후 부인에 의해서 용돈이 배분되는 방식을 취할 것인가 등은 동일하게 수입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라고 해도 그 의미는 크게 다를 수 있다. 가계관리 유형을 나누는 기준축은 실로 다양하고 또한 문화에 따라서도 크게 다르다. 가계관리 유형화를 시도한 선행연구들을 참고로 하면서 우리 문화에 맞는 기준을 찾아내서 보다 정교한 가계관리 유형을 도출해 내는 작업 및 이를 통해 다양한 각도에서 부부관계를 규명하는 작업은 이후의 연구과제로 삼고자 한다.

■ 참고문헌

김양희(1991). 여성의 의식과 생활실태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31**, 111-149.

김현주(2003). 부부의 경제 및 가사역할의 수행과 인식수준에 따른 결혼만족도. **가족과 문화 15(1)**, 97-130.

박명희(1977). 한국어촌의 가계관리연구. **관동대논문집 5집**, 327-340.

박혜진(2006). 기혼여성 취업소득의 가구내 집행과 의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기춘(1975). 가계관리형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3(1)**, 11-20.

한지수(1997). 도시 맞벌이부부의 금전관리유형, 경제생활주도권과 경제생활만족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한지수, 이연숙(1998). 도시 맞벌이부부의 금전관리와 경제생활주도권 유형의 측정방법 및 실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1)**, 1-14.

황덕순(1981). 제주도의 가계관리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

- 가정학회지, 19(2), 39-56.
- 木村清美, 御船美智子, 室住眞麻子(1993). 家計組織化における夫婦関係. 生活経済学会報告 第9巻, 35-53.
- 木村清美(2003). 「第7章 家計の中の夫婦関係」善積京子編 『結婚とパートナー関係: 問い直される夫婦』, ミネルヴァ書房, 168-190.
- 御船美智子(1989). 家計概念の検討と家計管理論の展開. 共立女子大学家政学部紀要, 第35号, 146-155
- 御船美智子(1990). 家計・家計管理概念の再検討. 季刊家計経済研究, 通券第8号, 34-48.
- 御船美智子(1992a). 家計の個別化について. 季刊家計経済研究, 通券第13号, 24-31.
- 御船美智子(1992b). 「家計の組織化」家計経済研究所編 『ザ・現代家計—家計の組織化に関する研究』大蔵省印刷局, 31-50.
- 御船美智子(1995a). 家計内経済関係と夫妻間格差. 季刊家計経済研究, 通券第25号, 家計経済研究 57-67.
- 御船美智子(1995b). 家計收支と経済関係. 家計経済研究所編 『消費生活に関するパネル調査(第1年度)』大蔵省印刷局, 29-70.
- 御船美智子(1995c). 「家計收支と家計管理の変化」家計経済研究所編 『消費生活に関するパネル調査(第2年度)』大蔵省印刷局, 39-73.
- 御船美智子, 李秀眞(2005). 「第1章 調査の目的と方法」, お茶の水の女子大学 21世紀COEジェンダー研究. フロンティア・プロジェクトB編 『家族・仕事・家計に関する国際比較研究 韓国パネル調査(第1年度報告書)』, 1-8.
- Ahrne, G., & Roman, C.(2001). *Hemmet, barnen och makten: Forhandlingar om arbete och oengar i familjen, Rapport till Utredningen om fordelningen av ekonomisk makt och ekonomiska resurser mellan kvinnor och man*, SOU, 『家族に潜む権力—スウェーデン平等社会の理想と現実』, 日本・スウェーデン家族比較研究会・友子ハンソン訳. 青木書店(1997년 원저발간)
- Colavecchia, S.(2005). Family Finances: A Sociological Study of the Earning, Managing and Spending of Money in Marital Relationships. University of Toronto Doctoral Dissertation.
- Edwards, M.(1981). Financial Arrangements within Families. *Social Security Journal* Dec; 1-16.
- Edwards, M.(1982). Financial Arrangements made by Husbands and Wives; Findings of a Survey.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Sociology*, 18(3), 320-338.
- MacRae, S.(1987). The allocation of Money in Cross-Class Families. *The Sociological Review*, 35(1), 97-122.
- Morris, L.(1993). Household Finance management and the labour Market; A Case Study in Hartlepool. *The Sociological review*, 41(3), 506-536.
- Nyman, C.(1999). Gender equality in 'the most equal country in the world' Money and the Marriage in Sweden. *The Sociological Review* 1999, 766-793.
- Paul, J.(1980). Pattern of Money Management within Marriage. *Journal of Social Policy*, 9(3), 313-335.
- Paul, J.(1983). The allocation of Money and the Structuring of Inequality Within marriage. *The Sociological Review*, 31(2), 237-262.
- Paul, J.(1994). Money and Marriage. London: Macmillan, 『マネー&マリッジ』室住眞麻子・木村清美・御船美智子訳. ミネルヴァ書房. (1989년 원저발간)
- Tichenor, V. J.(1999). Status and Income as Gendered Resources: The Case of Marital Powe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 638-650.
- Vogler, C.(1994). Money in the Household. In Anderson, M. et al, *The Social and Political Economy of the Househol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Vogler, C., & Paul, J.(1994). Money, Power and Inequality with in Marriage. *The sociological Review*, 42(2), 263-288.
- Vogler, C., & Wiggins, R. D.(2006). Intimate relationships and changing patterns of money management at the beginning of the twenty-first century.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57(3), 455-482.
- Wilson, G.(1987). Money in the Family: Financial Organisation and Women's Responsibility. Aldershot. England: Avebury.

접수일 : 2009년 11월 30일

심사시작일 : 2009년 12월 7일

게재확정일 : 2010년 9월 20일